

■ 버팔로 1600SCMC는 판지는 물론 E, B, A 골판지까지 3면, 4면, 6면 등 다양한 접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작업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고, 작업 위험성을 크게 줄였다.

따뜻한 봄날, BUFFALO의 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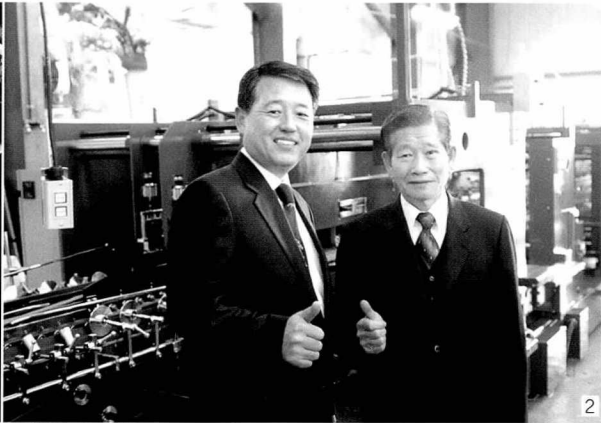
션엔지니어링 신제품 발표 전시회

션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한 장의 초대장이 전해졌다. 새로운 신제품이 발표되어 그곳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3월 8일, 기분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 부천에 위치한 삼정동 본사공장을 찾았다. 경인 고속도로를 달려서 도착한 그곳, 시간은 10시가 조금 지났다. 전시회가 시작되었지만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문 앞에는 이번 전시회를 축하하는 화환들이 요란하게 줄을 맞춰 서 있었고, 그 위로 유난히도 푸른 하늘이 흐르고 있었다. 버팔로가 외출하기 좋은 날이었다.

기분 좋은 전시회, 그곳에서 버팔로를 만나다

이번 행사는 션엔지니어링에서 직접 기획한 행사로, 3월

8일에서 9일까지 이틀간 본사공장을 오픈해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신제품 BUFFALO 1600SCMC(이하 버팔로1600)를 직접 만나 볼 수 있게 하는 자리였다. 이번엔 새롭게 선보인 버팔로1600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국내외 바이어들이 본사공장을 찾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감탄으로 행사장은 시끌벅적했다. 이날 가장 바쁜 사람은 박인호 대표이사였다. 본사공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션엔지니어링 박인호 대표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고, 웃는 모습으로 공손히 답례하는 모습이 인상에 남았다. 사람들은 버팔로1600이 작동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션엔지니어링 직원들은 세팅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내 본사 공장내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버팔로1600이 그 움직임을 시작했다. 천천히 발걸음을 떼어놓더니 이내 힘차게



1. 버팔로1600 SCMC는 모든 움직임이 컴퓨터로 신속, 정확하게 컨트롤 된다. 2. 한성실업 김충웅 사장이 최고의 제품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3. 축하와 격려로 시작한 전시회, 화환앞 박인호 대표이사 4. 화창한 날씨, 기분좋은 소식, 버팔로 1600SCMC 출시 5. 버팔로1600 SCMC의 동작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썬엔지니어링 박인호 대표이사



들판을 뛰어나가는 버팔로처럼 작업을 해 냈다. 복잡한 설계의 포장을 순식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 내는 모습에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다. 버팔로1600의 작동을 설명하던 박인호 대표이사는 “버팔로1600은 주문 생산 제품으로 작년 46대의 수출량을 올린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며 “수출 전에 기회가 되어 썬엔지니어링 고객들에게 이렇게 시연해 보여 드릴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BUFFALO,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버팔로1600의 움직임을 보던 사람들은 모두 빠르고 정확한 그 움직임에 눈을 떼지 못했다. 버팔로는 무엇보다도 제품자체 교정장치와 직각교정장치(Hot melt 부착), 집적교정장치 등 3종류의 교정장치를 통해 깨끗하고 정확한 접착을 한다.

또한 컴퓨터를 통해서 제품의 형태와 치수를 입력해 두면 3분 이내에 자동세팅이 이루어지며, 한번 세팅한 이후에는 버튼 하나로 버팔로를 작동할 수 있다. 이밖에는 후방의 유동판은 적재된 제품을 추려주면서 접착비틀림을 교정하고, 서브모터는 2축으로 간단하고 힘차게 구동한다. 버팔로 1600은 전체적으로 관리자의 편의와 안정성을 한 차원 높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썬엔지니어링(주)는

썬엔지니어링은 자동접착기(folding-GLUER) 전문업체로 국내에 잘 알려진 기업으로, 부품을 가공하고, 제작 완료할 때까지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매년 30~40대의 접착기를 국내에 납품하고 있으며, 해외 매출역시 30%에서 40%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일본, 중국, 동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중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국내 법인은 1986년 설립되어 20여 년 동안 최고의 성능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고, 제작에서 완료까지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불량률 0%에 도전하고 있다. 1990년에는 최첨단 설비를 마련해 지금의 부천 공장으로 이전했고, 1996년에는 꾸준한 발전으로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9년에는 산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현재 썬엔지니어링의 박인호 대표이사는 1995년 한국본사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일본과의 꾸준한 공동개발을 통해서 썬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을 한 차원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그의 말처럼 국내 장비 수출 기록을 꾸준히 갈아치우고 있으며, 2000년에는 독일 DRUPA 전시회에 직접 제품을 출품해 세계의 많은 인쇄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